‘인재불사’ 발원 1천일 기도

신 행현 장

화엄학림 후원회

22일 오전 9시 남원 실상사 법당. 화엄학림 후원회 김점진(무애심) 회장, 김태임(복덕행) 총무등 회원 30여명이 실상사 법당에 모였다. 회원들은 11시 법회를 앞두고 법당주변 청소, 불단정리, 법당 바닥청소, 방석정리, 난방시설 점검에 분주하다. 회원들은 법회 후 곧바로 공양간으로 가서 공양을 준비했다.

후원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텃밭에서 길러온 유기농야채를 가져와 점심공양을 준비했다. 오후에는 법당에 모여 ‘인력불사’를 염원하며, 독경과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회장 무애심 보살의 손에 들린 죽비소리에 맞춰 정진하는 회원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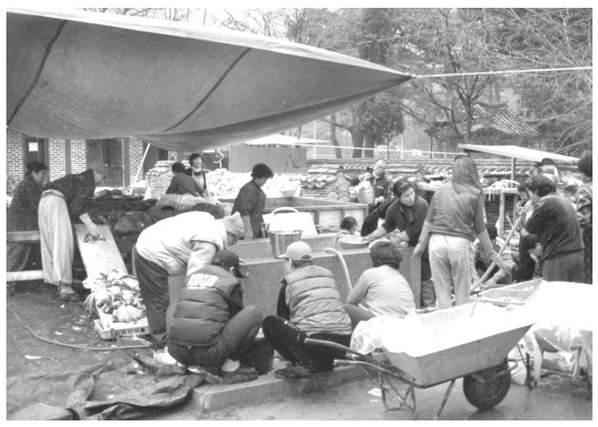
3년 전 ‘인재불사’를 발원하며 기도정진에 입재한 화엄학림후원회는 다음달이면 1천일기도를 회향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80~2080배와 금강경 독송을 해온 화엄학림 후원회는 지난 3일 200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으로 창립행사를 갖고 전국 산하조직도 구성했다.

그 동안 인천(人天)의 스승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스님들의 배출을 위해 조용히 뒷바라지만 해온 화엄학림후원회가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화엄학림뿐 아니라 다른 사찰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스님, 그리고 공부에 뜻있는 스님들에게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창립법회는 지난 3일 공식적으로 가졌지만 화엄학림후원회가 모인 것은 지난 96년이다. 화엄학림이 설립된 후 1년 만에 불자들이 후원을 발원하며 모이기 시작했다. 불자들

회원 2백여명 십시일반
실상사 옛터 2만평 구입
귀농학교 부지로 보시

은 아무런 조건없이 매달 1만원의 후원회비를 모았다. 5년동안 회비를 모아 화엄학림 강당을 지었고, 대웅전복원불사에도 참여했다. 실상사 옛터사기 운동도 전개하여 2만여평을 확보, 귀농학교 부지로 내놓았다. 또 농사를 직접지어 사찰의 먹을거리 자립에도 한몫하고 있다. 후원회는 전 회원이 십시일반의 마음을 갖게하기 위해 회비를 월1만원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그동안 회비사용내역도 꼼꼼히 기록 공개하고 있다.


◇화엄학림후원회 회원들이 화엄학림 스님들과 김장을 담그고 있다.

회원들은 스님돕는 일만 열심히 하는것이 아니다. 자기수행에도 철저하다. 1천배 · 3천배 철야정진기도는 물론 <금강경>등 경전공부에도 열심이다.

총무 복덕행보살은 “보름달 아래 탑돌이와 철야기도를 함께하며 스님과 불자들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사부대중이 어우러져 정진하는 공동체의 장이 되고 있다”며 “어떤 스님이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불자들이 후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뿌듯해 했다.

또 스님들이 올해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백두대간 낙동강 지리산 종주순례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후원회원들의 역할이 컸다. 회원들은 순례를 뒤따르며 공양 등 물품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화엄학림 후원회는 현재 학림을 졸업한 스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화림원’ 불사를 전개 중이다.

화림원은 실상사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방사가 없어 들어오지 못하는 스님들에게 연구및 수행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회장 무애심 보살은 “‘원효’ ‘의상’ 스님처럼 어려운 시대 등불이 되는 스님을 배출하는 화엄학림 후원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3) 636~3031

화엄학림에는 재학승 8명과 청강승 2명 등 현재 10명의 스님이 공부하고 있다. 매주 월, 화, 수요일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며, 전체가 강사이며 동시에 학생인, 교단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험적인 승가학림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제 뿌리를 믿 으라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저 ‘그렇다더라’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밖에서 경배의 대상을 찾고 그로부터 복과 가피를 바라는 것은 바로 ‘건성 믿음’ 때문이다.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로서 성불할 수 있다, 내게는 부처님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면 구태여 밖에서 찾고 밖에서 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믿음엔 조건이 없다. 내게 불성이 있음을 믿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가령 누가 바깥 대상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정말 믿을만한 것인지 따져볼 조건이 붙겠지만 자기가 제 뿌리를 믿는데야 조건이 붙을 까닭이 없다. 자기가 제 뿌리인 제 불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스승인 부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고 진리를 의심하는 결과가 된다. 불자로서 어찌 부처님을 불신하겠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한마디로 절절한 마음이어야 한다. 물이 끓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뼈에 사무치도록 애절한 마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듯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왠만큼 불심이 돈독하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뱃심, 죽든 살든 다 맡기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믿음을 말하지 말라.

내게 불성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이지 수행이란 필요없다. 믿음 그것으로서 족하다. 수행이란 다름이 아닌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우쳐 가는 방편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고히 믿는 이에게는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

생활 속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니 따로 수행이 필요없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잘 된다 못 된다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지든 일어서든 구애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자기 중심 사고 벗어나 전체 볼 줄 아는 삶을”



혜학스님
울주 망해사 주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품격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품위라는 말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이 한 인간의 외적인 됨됨이, 격조와 함께 내적인 인격의 성숙 및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고 하면 품위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위의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품위는 인간의 내적인 성숙도와는 상관없이 겉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인상과 행동거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도를 생각한다고 할 때 품격이나 품위 그 어느 것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편견 · 선입견 버리고
인욕할 줄 알아야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위의 보다는 그에 앞서서 갖추어진 내적인 성숙과 그것이 자연스레 베어나는 행동거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품격을 갖춘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주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즉 올바른 판단이 올바른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최초의 가르침에서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올바른 견해(正見)와 그에 따른 올바른 생각(正思惟)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무엇보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미시키지 않고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똑바로 본다는 것이 사실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견해를 똑바로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판단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일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는 항상 편견의 함정이 있고, 선입견이라는 멍에를 스스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견해가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인위의 작용에 의하여 왜곡되기 쉬울 뿐 아니라 상반되는 생각이 서로 정당함을 주장해 혼란마저 일으키곤 합니다. 일반적인 매스컴을 이용하여 정보를 구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이것은 판단의 주체자인 개개인에게 뚜렷한 신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념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신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란 바로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저는 인욕을 꼽고 싶습니다. 인욕, 욕됨을 참는다, 이것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절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진 사회에서 인욕을 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지고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가 이기려고만 하니까요. 아이, 어른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시빗거리에서 그것을 피해 갈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한판 하려고 벼르는 사람들 같고, 모두가 결전 태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품격이란 그런 마음자리를 갖추고서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 행 캘린 더

11월29일 (목)

■진각종 9대 총인 추대법회=진각종은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제9대 총인 혜일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한다. (02)914-0840

■군불교위원회 출범식=군불교위원회 출범준비위원회는 오후 5시 30분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 및 제33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20-7060

12월1일 (토)

■연꽃어린이집 재롱잔치=구룡사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구민회관에서 연꽃어린이집 재롱잔치를 개최한다. (02)575-7766

■제28회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조계종 포교원은 오후 3시부터 2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부처님이 최고야’를 주제로 제28회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12월2일 (일)

■3사 대웅보전 답사=터사랑은 ‘이름이 같은 절집’을 주제로 전주 송광사, 완주 화엄사, 논산 쌍계사의 대웅보전을 비교, 감상하는 답사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7시 안국역 및 양재역. (02)725-1284

12월 3일 (월)

■불교언론인의 밤=한국불교기자협회는 오후 7시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제5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및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02)734-0777

12월 5일 (수)

■제9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사단법인 불국토는 오후 5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9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을 갖는다. (051)868-0950

■직장인 교리강좌=동산반야회는 오후 7시 서울 동산법당에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마련한다. 내년 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열린다. (02)732-1206

■석불회 송년모임=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 (02)760-5138

■불교사회복지대회=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후 2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1부 행사인 기념세미나에 이어 2부 행사로 법회 및 유공자 표창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02)723-5101